

보도 일시	2021. 9. 30.(목) 16:00	배포 일시	2021. 9. 30.(목) 10:00
담당 부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지원과	책임자	과장 박소정 (044-203-3031)
		담당자	사무관 채수일 (044-203-2971)

차별 없는 사회,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길 ‘한국판뉴딜’ - 9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에이치엠엠(주) 등 4개 사례 선정 -

- 온실가스 배출 ‘0’으로 미래형 친환경 선박 전환 - 에이치엠엠
- 고래가 삼킬 수도 있는 플라스틱을 고래 인형으로, 바다 쓰레기 재활용 - 우산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 이유
- 온라인 지도로 코로나19 교육 공백 해소 - 김희수 전남대 사범대 학장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9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에이치엠엠(주), (주)우산(이하 그린뉴딜)과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김희수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이하 디지털뉴딜) 등 4개 사례를 선정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위원회가 엄정한 평가를 해 선정한다.

선박 온실가스 배출 ‘0’에 도전 - 에이치엠엠(주)

에이치엠엠(주)은 세계 8위권의 국적 원양선사로서 에너지효율 개선 설비 도입과 선박 개조 등으로 지난해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약 55% 감축했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는 57%,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70%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에이치엠엠(주)은 국내 선사 중

유일하게 ‘탄소배출 제로 연대’에 가입하고,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 연료’의 안정성과 품질 검증을 위한 육상 시험 운전이 성공하는 등 해운 분야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정부는 ‘그린뉴딜’의 하나로 친환경 관공선 도입, 민간 선박의 친환경 전환 지원, 친환경 선박기술 인증제도 구축 등 ‘미래형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가속화, 전기차·수소차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에 참여한 박미경 맘카페 대표는 “에이치엠엠은 에너지효율 개선 설비를 도입하고, 시설을 개조하는 등 탄소배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윤근 소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도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없애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해양 쓰레기 재활용으로 바다 생태계 살리고 매출도 창출 - ㈜우시산

㈜우시산은 무분별하게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활용, 인형과 친환경 가방(에코백)·티셔츠 등 재활용(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하는 친환경 사회적 기업이다. 폐플라스틱을 다시 디자인해 가치를 더함으로써 바다를 살리는 동시에 매출도 창출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 분야를 개척했다. ‘고래가 삼켜 고래 배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플라스틱을 고래인형으로 만들자’라는 취지의 재활용 사업을 통해 쓰레기에 불과했던 폐플라스틱을 울산의 대표 문화콘텐츠인 고래 관광기념품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우시산은 올해 ‘그린뉴딜’ 사업 중 ‘업사이클 산업 육성’ 대상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바다 생태계 보호 캠페인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등으로 수익금을 환원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시설에 폐트병으로 만든 침구를 기부하고,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과 아동 가구에 재활용 의자를 전달하는 등 폐자원이 제대로 쓰이고 착하게 소비되는 선순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심사를 담당한 김동필 부사장(엘솔루)은 “자원의 새로 쓰임이라는 측면 외에도 환경친화적인 소비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폐자원의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구축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종혁 교수(광운대) 역시 “수익금을 일자리 창출과 생태 보존,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환원하는 등 ‘그린뉴딜’의 사회 가치 창출 목표와 가능성을 제시했다.”라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교통약자의 ‘이동 자유’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창업초기기업 ‘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이용권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자동배치시스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BF-DRT), 이동의 자유 지도 등 교통약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했다.

자동배차시스템은 접수와 배차가 자동으로 이뤄지고 예약 접수부터 예약 현황, 통계정보, 통합관제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교통약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출퇴근, 병원 치료, 은행 업무 등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고, 기사별 주행 건수, 주행 거리, 이용 인원, 이용 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도 높였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BF-DRT)는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병원·복지관·은행·공공기관·학교 등 거점 시설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승·하차 지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심사위원 박민우 작가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출을 하는 데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동의 자유와 여행의 꿈을 심어 준 우수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서정 대표(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미래세대·제주 국제고)도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편견의 시선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손꼽히는 시스템”이라며 심사 소감을 밝혔다.

공정한 교육안전망 구축 - 김희수 전남대 사범대학 학장

김희수 학장(전남대 사범대학)은 광주·전남지역 중·고등학생 중 기초학력이 부진하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을 위해 미래교육센터 등에서 온라인 공학기술과 지도를 접목해 ‘온라인 지도(멘토링)’를 진행했다. 사범대생 608명은 ‘온라인 지도’를 통해 2020년 1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 지역 내 중·고생 815명에게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학력을 높이고

강화하는 학습 성과를 만들어냈다. 또한 김희수 학장은 사범대생들이 현직 교원들의 온라인 교육을 돕게 해 교육 안전망을 구축·내실화하고, 예비교사들의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학교·학생·학부모·교원 양성기관이 지역교육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필요해짐에 따라 예비 교원들이 원격교육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국판뉴딜’의 ‘교육 기반시설 디지털 전환 사업’ 중 하나로 전국 모든 교대와 국·공립사대에 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김선현(임정기념사업회 이사) 심사위원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격차와 공백을 메우는 데 상당히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조규리 대표(기후변화청년단체)도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심하고 지속적이며 공정한 교육 안전망 구축은 꼭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기반(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9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후보 추천에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서경종 총괄 감독(CP, 이날치 광고 제작), 김선현 이사(임정기념사업회), 박미경 대표(맘카페), 조규리 대표(기후변화청년단체), 박서정 대표(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미래세대·제주 국제고), 박지영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오상봉 소장(한국노동연구원 연구센터), 이은상 장학사(서울시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6명이 심사를 담당했다.

* 해양수산부, 교육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9월 30일(목) 오후 4시, 정부 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에이치엠엠(주), (주)우시산,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김희수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문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수상한 분들은 녹색·디지털 분야에서 혁신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한국판뉴딜’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한국판뉴딜’의 우수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지원과	책임자	과장 박소정 (044-203-3031)
		담당자	사무관 채수일 (044-203-2971)
<행사>	해양수산부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장 노재옥 (044-200-5013)
		담당자	사무관 윤복근 (044-200-5014)



에이치엠엠(주)

회 사 명	에이치엠엠(주)
한국판뉴딜 연관성	그린뉴딜-미래형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선박 온실가스 배출 '제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 선박으로 '탄소 중립' 이끈다

탄소 감축 '선택' 아닌 '필수'

에이치엠엠(주)은 세계 8위권의 국적 원양선사. 국내 선사 최초로 LNG-Ready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투입해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지난해에는 국내 선사 중 유일하게 '탄소배출 제로 연대'에 가입하는 등 한국형뉴딜(그린뉴딜) 중 '친환경 선박 전환 등 미래형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선도했다. 지난 5월 27일에는 '2050년 탄소배출 중립 달성'을 선언(2021 P4G 해양특별세션)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탄소배출 제로 연대: 2030년까지 완전한 무탄소 선박을 상업적으로 출시, 운항을 목표로 글로벌 기업·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조직

그린뉴딜 - 미래형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

'친환경 선박 전환 등 미래형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은 한국판뉴딜(그린뉴딜) 중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사업. 이를 위해 정부는 친환경 관공선·함정 등을 도입하고, 민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친환경 선박 확보 노력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요 조선·물류기업·한국선급 등과 함께 친환경 선박·해운시장을 선도하고 △그린 암모니아 해상운송 및 벙커링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래형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에이치엠엠의 사례는 눈여겨 볼만하다. 에이치엠엠은 1976년 유조선 3척을 시작으로 현재 컨테이너선·벌크선·광탄선·중량화물선·특수 제품선 등 선박 110여 척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 해운 물류 기업이다.

2008년 대비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

에이치엠엠의 탄소 중립 대표 성과는 에너지효율 개선 설비 도입과 선박 개조 등 연료 효율 개선 노력으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20년에 약 55% 감축했다는 것. 에이치엠엠은 이를 토대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올해 57%, 2030년까지 약 70%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포함, 선체·기기와 화물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제어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 연료'의 안정성과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약 6개월간 실제 선박에서 사용하는 엔진과 같은 환경에서 육상 시험 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지난 7월 중순부터는 1만3,000TEU 컨테이너 선박에 바이오 연료를 선적해 실제 운항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선 검증하고 있다.

(주)우시산

회 사 명	(주)우시산
한국판뉴딜 연관성	그린뉴딜-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페플라스틱을 친환경 솜과 실로 재가공해 인형에코백·티셔츠·가방 등으로 재활용 하는 업사이클링 사업 추진



업사이클링으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린다

버려진 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다

(주)우시산은 페플라스틱을 친환경 솜과 실로 재가공한 뒤 인형과 에코백·티셔츠·가방 등으로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사회적기업이다. ‘우시산’은 울산의 옛 지명. 2016년에 설립된 우시산은 울산지역 상징물인 고래가 플라스틱을 머금고 죽은 채 발견된 것을 보고 업사이클링 사업을 시작했다.

우시산은 폐자원이 저마다의 쓰임을 찾아 착하게 소비되는 선순환의 가치를 지향한다. 특히 페플라스틱에 가치와 디자인을 더해 상품화를 거쳐 지역 바다 생태계를 살리면서 매출도 창출하는 해양 업사이클링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고래 뱃속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고래인형 솜으로 만들자’는 취지의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통해 쓰레기에 불과했던 페플라스틱이 울산의 대표 문화콘텐츠인 고래 관광기념품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올해 한국판뉴딜 그린뉴딜 사업 중 하나인 ‘업사이클 산업 육성’ 대상으로 선정돼 지원(60억 원, 업체당 최대 1억 원 지원)을 받았다.

더 착한 자원 ‘재활용’... 페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

우시산은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페트병 뚜껑 모으기 챌린지’를 진행, 이렇게 모은 페트병 뚜껑을 쓰레기통 등으로 재탄생 시키는가 하면, 매월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 내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페플라스틱을 별도로 모아 솜이나 이불 등으로 탈바꿈시켰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배달문화 급증에 따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분쇄해 만든 업사이클링 수납의자를 새롭게 출시, 지난 5월 P4G정상회의 ‘재활용패션쇼’에 납품하는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울산항에서 시작된 ‘페트병 업사이클링 사업’이 해양수산부 혁신과제 1위로 선정되면서 전국 항만에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이어 부산항만공사로까지 사업이 확대돼 부산관광공사·세이브더칠드런 등과 ‘더 착한 자원순환’을 위한 상호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우시산은 이밖에도 수익금을 일자리 창출은 물론 바다 생태계 보호 캠페인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활동으로 환원하고 있다. 장애인시설에 페트병으로 만든 침구를 기부하고,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과 아동 가구에 업사이클링 의자를 전달했다.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회 사 명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한국판뉴딜 연관성	디지털뉴딜-데이터 바우처-교통약자를 위한 솔루션 개발 및 이동데이터 구축



사회적협동조합 '이유'의 '이유 있는' 교통약자 이동 솔루션

자동배차시스템·무상카풀 등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해소

사회적협동조합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부산의 비영리 스타트업이다. 자동배차시스템·승차공유 플랫폼, DRT(수요응답형교통) 등 교통약자용 교통수단 서비스를 개발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지원받았다.

여러 택시 앱의 등장으로 보통 성인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야 10분 남짓. 그러나 교통약자용 택시는 평균 76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이유'는 이런 기다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예약접수부터 현황, 통계정보, 통합관제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동배차시스템'을 개발했다.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현재의 거리와 교통의 흐름 등을 반영해 최단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차량을 배차한다. 신청 단계에서 탑승 인원, 외출·귀가 또는 병원 방문 등 이용 목적, 휠체어·목발 등 소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기에 가장 적합한 차량을 배차한다. 지난해 플랫폼 시범 운영(부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소속 차량 15대) 결과, 신청에서 탑승까지 평균 76분에 달했던 배차 대기시간이 30분 정도로 단축됐으며, 하루 탑승 인원도 74명 늘었다.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약자 이동의 자유 돕는다

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은 또한 병원·복지관·은행·공공기관 등 거점시설을 기준으로 교통약자의 수요에 맞게 대중교통 승·하차 지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BF-DRT(수요 응답형 교통)' 등도 개발.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한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 기간 중 총 28개 관련 기관과 서비스 실증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부산시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토교통부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에도 선정됐다.

서비스 지역을 현재 서울 은평구 및 경기도 4개 시(파주·구리·안산·오산)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충청권·광주광역시 등과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회원 수는 4,679명, 서비스 이용 건수도 3만 1,392건에 달한다.

김회수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인 물	김회수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한국판뉴딜 연관성	디지털뉴딜-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온라인 공학기술을 활용, 학교 교육 공백과 학습 격차 해소-지역사회의 공정한 교육 안전망 구축



교육공동체 생태계 복원... 공정한 교육안전망 구축

원격수업으로 코로나19 교육 공백 해소

김회수 학장(전남대학교 사범대학)은 광주·전남지역 내 중·고생 중 기초학력이 부진하거나 상대적으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학기술과 멘토링을 접목한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해 주목받았다.

김회수 학장은 애초 대학생을 멘토로 하는 기초교육 대면 멘토링을 광주와 전남 교육청으로 요청받았으나, 거리와 시간의 제약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터라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고, 마침 한국판뉴딜의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사업’을 활용한 온라인 멘토링을 구상했다. 결국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 교육 공백과 학습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김 학장이 추진한 온라인 멘토링은 지역 내 공정한 교육망 구축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됐다.

*정부는 한국판뉴딜 중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사업’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비롯된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함양 요구가 예비교원의 양성과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교대 및 국·공립사대에 미래교육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 ‘에듀테크 멘토링’

김회수 학장은 사범대 학생들이 온라인 멘토링(에듀테크 멘토링)에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범대 교원을 학교현장 온라인 교육에 지원했다. 그 결과, 2020년 1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 사범대생 멘토 608명이 815명의 중·고생에게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학력 회복과 강화 학습을 지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부적으로는 교과별 학습에 대한 멘티(중·고생)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적의 멘토(사범대생)와 1:1 또는 1:2 매칭 및 사전교육, 멘토링, 사후평가, 지원체제 구축 등 체계적인 멘토링을 설계하고 실행했다.

김회수 학장은 또한 2018년과 2019년 두 해에 걸쳐 매년 20여 명의 학생과 함께 전남지역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도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했다.

온라인 멘토링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멘티 학생의 100%가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학습 지원과 성취동기 유발 등 정서 지원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멘토의 100%가 ‘멘토링 활동이 교사로서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학기와 겨울방학 기간에는 사범대생 자원자 500명을 모집, 지역 중·고생에게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할 계획이다.